

특집

□ 石油제품시장
동향과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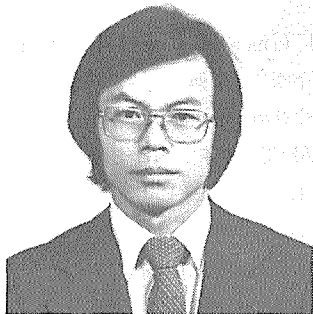
産油國의

下流部門

진출과

우리의

対応方向



李 英 九

〈韓國動力資源研究所 石油政策室長〉

I. 머리말

세계 石油시장구조는 70년대의 두번의 파동을 거치면서 크게 변화되고 있다. 에너지소비절약의 확산과 石油代替에너지의 사용확대는 石油製品의 수요패턴과 제품생산과의 불균형과 정유능력의 과잉을 초래하였다. 또한 이것은 石油의 貿易形態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80년대에 있어 石油무역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단기적인 現物去來의 증가와 石油製品貿易量の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現物市場의 확대는, 지금까지 장기계약에 의해 原油를 수출해 왔고, 그것도 주로 國際石油會社를 통해 판매함으로써 판매부문 경험이 부족한 産油國에게는 시장지배력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石油製品무역의 증가는 석유수입국 뿐만 아니라 産油國의 정유산업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原油를 수입하여 필요한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소비국들은 산유국의 하류부문진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對應策 강구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OPEC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은 附加價値의 창출, 工業化추진, 고용의 확대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제품무역의 증대를 이용하여 石油分配市場에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OPEC의 原油생산제한으로 부터의 회피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출용精油工場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本稿에서는 石油製品무역의 증대가 소비국의 석유수급에 미칠 영향과 産油國의 하류부문진출전망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産油國의 下流部門진출현황과 전망

OPEC 産油國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막대한 石油資金(Oil money)을 배경으로 自國資源의 활용과 附加價値 제고를 위해 정제공장건설에 투자해 왔으며, 이미 그 일부가 가동되고 있다. 産油國 특히 中東수출국 및 인도네시아의 精油工場 확대가 1970년대에 석유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던 시기에 행해진 것이며, 이미 수십억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에 공장은 가동될 것이다.

수출용 精油工場의 가동은 현재의 석유시장여건 하에서 보면, 가격이 높은 原油의 수출잠재량을 창출, 石油收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물시장에서의 石油製品 Netback Value가 原油의 현물가격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石油輸出国전체로 보았을 경우이고 개별 OPEC회원국에게는 당분간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유공장의 가동이 중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1980년대의 석유제품의 무역추이를 보면, 〈表-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말에 15%에도 못미쳤고, 1980년에 17% 수준이었던 제품무역이 작년에는 全体 石油무역량의 25%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무역의 증가는 原油의 수출감소에 의해 발생하였음도 알 수 있다.

〈表-1〉 石油製品 貿易추이

(單位：千B/D)

	1984	1983	1982	1981	1980
中 南 美	1,520	1,415	1,690	2,035	2,045
東 歐 圈	1,290	1,230	1,015	975	885
中 東	980	820	710	610	1,090
東 南 아 시 아	505	330	415	375	355
美 國	540	575	580	370	270
世界 計(製品)	6,015	5,520	5,470	5,205	5,390
石 油 計	24,750	24,355	25,565	28,655	31,935
製品 比率(%)	24.3	22.7	21.3	18.2	16.9

〈資料〉 PIW, July 1, 1985.

앞에서 産油国의 제품수출이 個別회원국에 대해서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서는 첫째로 産油量이 할당되고 있는 상황에서 自國의 「쿼타」를 회피하기가 용이하다는 점, 둘째로 제품 생산비가 선진국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 세계로 原油판매부문에서의 劣位를 製品판매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로 만회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내재로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국내의 정유공장의 경제성이 저하되면 製品貿易이 擴大되어 石油製品의 純回收價值(Netback value)가 原油가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현재 세계의 정유능력은 과잉상태여서 歐美에서 잇달은 정유공장 폐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石油제품의 수요경질화 때문에 설비 고도화에 대한 투자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美国에서 100여개의 정유공장이 폐쇄되었고, 앞으로도 50~100만b/d정도가 추가로 폐쇄될 전망이다. 유럽지역도 상황이 비슷하여 이미 100만b/d의 시설이 폐쇄되었고, 操業率도 낮은 상태에 있다.

OPEC산유국은 현재 약 6백만b/d의 정제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中東OPEC의 정제능력은 약 280만b/d로 OPEC의 절반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수출여력은 150만b/d(가동률 80%)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 건설중인 輸出用精油工場이 완공되면 OPEC産油国은 1988년에는 약 100만b/d의 능력증강과 약 50만b/d의 새로운 제품수출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수출의 증가는 몇가지 요인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그 요인으로서 첫째 예상되는 수출량의 증가가 당초에 비해 小規模이며 추가계획이 없다는 점, 둘째, 石油需要가 後發開途国과 특히 OPEC산유국에서 크게 增加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수출가능량이 잠식될 수 있다는 점, 셋째 OPEC산유국이 原油價格의 유지를 最優先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품무역에 있어서는 경제성과 합리성에 입각하여 신중하고 질서있는 시장행동을 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III. 製品貿易증가의 영향

OPEC의 石油製品 수출여력은 日本에너지經濟研究所의 추정과 東西센터의 페사라키博士의 推定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250만b/d에서 350만b/d 정도이다. 이 정도의 수출여력은 현재에 비해 1988년에는 150만~250만b/d, 1990년에는 130만b/d의 증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정도의 石油製品수출 증가가 우리나라의 石油수입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日本에너지研究所의 추정에 따르면, 非OPEC 開途国의 경우 精油工場의 가동률을 70%로 할 때, 1988년에는 80만b/d의 中間溜分을 수입하고 80만b/d의 나프타와 重油를 수출하게 되며, 1990년에는 110만b/d의 揮發油和 中間溜分을 수입하고 60

〈表-2〉 太平洋지역의 石油製品 수급 (1988)

(單位: 千B/D)

	輸出地域	非OPEC 開 途 國	先 進 地 域
揮 發 油	76.5	5.5	△ 108.5
나 프 타	216.5	126.9	△ 460.3
中 間 溜 分	237.4	△ 446.0	△ 56.3
重 油	159.4	119.1	△ 537.9
燃 料 油 計	689.8	△ 194.5	△ 1,163.0

〈資料〉「エネルギー經濟」, 1985年 3月號

단b/d의 나프타와 重油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에서 太平洋지역 非OPEC開途國의 石油製品 수급을 보면, 〈表-2〉에 제시된 것처럼 中間溜分の 공급부족이 크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中間製品에 대한 石油製品輸出國의 압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中東地域의 수출여력중 중간제품의 비중이 높고, 우리나라에서는 시설고도화가 지연되어 中間製品の 공급부족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中間製品の 수입은 國內精油産業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石油製品의 수입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러가지 단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장점으로는 첫째, 국제시장으로 부터 상대적으로 싼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도 있다는 점과 둘째 製品수입과 원유수입의 적절한 배분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는 石油精製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일수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 石油수출국과의 무역확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단점으로는 첫째, 石油는 連產品이므로 各製品이 수입되거나 혹은 揮發油 등 特定製品이 급격히 그리고 대량으로 수입되어 제품의 수급균형이 깨진다는 점, 둘째로 국제적으로 製品市場의 상황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셋째로 이 때문에 민수용 연료인 中間製品의 수급이나 가격이 크게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 넷째로 국제적으로 가격이 높아지는 사이클에 들어섰을 경우 과도한 製品輸入 의존은 가격의 폭등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 다섯째로 제품의 輸出餘力이 中東產油國에 집중되어 있어 석유위기에 대비한 石油輸入先多邊化政策에 역행한다는 점 등

을 들 수 있다.

IV. 消費國의 対応方向

현재 產油國들의 石油政策의 기본은 原油價格의 유지에 있기 때문에 製品輸出戰略도 그 테두리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石油製品수출의 중심으로는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일 것이다. 이들의 石油製品輸出戰略을 보면, 최근 사우디 아라비아는 제품판매계약지침에서 제품수출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現物價格에 연결시키되, 판매방식에 있어서는 가격변동이 민감하여 原油價格에의 영향이 큰 製品現物市場으로의 판매를 피하고, 製品販賣網을 가지고 있는 大型石油會社와의 장기계약을 통해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쿠웨이트도 이미 西歐소비국의 제품시장에 직접참여하고 있으나, 시장을 혼란시키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산유국의 下流部門진출문제에 대한 歐美각국의 평가 및 정책대응은 일반적으로 냉정하고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왜냐하면 OPEC산유국의 전설중인 精油工場이 완공된 직후인 1987년을 전후한 2~3년간은 精製能力과 수요의 불균형이 클 것이나 그 정도의 石油製品市場의 혼란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產油國의 下流部門 진출에 관한 선진국의 정책대응은 일반적으로 產油國으로 부터의 제품수출증가분이 메이저의 판매망을 중심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흡수됨으로써 그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현재의 自由市場政策이나 原油·製品輸入비율에 의한 대응 등의 기본적인 방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EEC의 一般特惠關稅制度(실링초과시 제품수입관세 적용)의 제검토나 사태에 따라서는 새로운 입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美國에서도 당장은 그 문제에 대하여 낙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긴하나 상황의 변화여하에 따라서는 새로운 정책대응을 강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日本에서는 지금까지 石油製品의 수입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自律規制로 나프타와 B-C油만을 수입해오고 있다. 다른 제품, 특히 揮發油의 수입개방에 대해서는 정부차

원에서도 꺼려하고 있고, 消費地精製主義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제품수입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 분명한 정책방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V. 우리의 対応方向

石油를 수입하여 소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国家들은 石油의 안정공급을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의 저하나 設備高度化를 위한 막대한 투자자금의 소요에도 불구하고 消費地精製主義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市場構造의 변화에 따라 신축성을 갖는 정책으로 변경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消費地精製主義를 잘 지켜왔던 日本도 石油輸出国 뿐만 아니라 유럽 및 美国에서의 石油製品 輸入開放压力 때문에 그 대책강구에 腐心하고 있다. 이는 세계석유시장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수입을 개방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임을 示唆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製品輸入에 대한 대외적인 압력을 완화시키고 대내적으로는 製品輸入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製品輸入 확대가 가져올 단점을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신중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수입을 즉시 開放한다거나 수입의 절대반대라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石油製品의 수입은 단계적으로 国内市場狀況에 맞추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石油수요는 점차 輕質化되어가고 있는 반면 정유시설은 많은 시설투자가 뒤따르지 않는 한 수요변화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실정에 있

다. 또한 国内的 製品價格은 消費構造의 특성이나 財政政策上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수입의 개방은 国内精油産業의 존립을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石油輸入의 확대에서 생기는 精油産業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製品수입의 주체를 우선 정유회사로 한정하고, 점차 일정한 자격을 갖춘 大需要處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국내공급과 製品輸入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그 比率内에서 수입을 자율화 시킴으로써 정유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를 지양하게 할 수 있다.

끝으로 精油産業에서의 대응방향은 과대투자로 인해 비용이 상승하지 않도록 시설투자에 있어서 國際市場과 국내시장의 구조변화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個別會社의 이익보다 精油業全体の 입장에서 대처하는 길이다. 原油의 수입에 있어서 個別會社의 이익만을 추구, 값싼 原油만을 수입하기 위해 한 지역으로 편중되면 국가의 石油공급은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다. 또한 自社에서 生産되지 않는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려 할 때, 그것이 국가적으로는 제품의 과잉공급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產油国의 下流部門 진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도 石油市場의 변화상황과 소비국의 대응방향과 보조를 맞춰가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이 輸入關稅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輸入量上限을 설정하는 경우 등 그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加味하면 된다.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조치와 다르거나 그 강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 자원외교가 貿易紛爭 등의 요인이 되어 國家利益을 해치게 된다. *

생활은 검소하게

휴가는 건전하게